

새로운 탄생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남부지부

정확한 건진과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16번째 지부로 새롭게 탄생한 서울남부지부가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송파구 롯데캐슬플라자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부는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강남권역 사업장과 주민이 편하게 찾아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남부지부를 찾았다.

한 바퀴만 돌면 건강검진이 끝난다

찾아가는 길부터 힘들지 않다. 잠실역 8번 출구와 연결된 롯데캐슬플라자 5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MEDICHECK '웰컴존'이다. 웰컴존에서는 검사 상담과 예약이 진행된다. 7월 개원을 앞두고 건진 예약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층별 이동 없이 한 층에서 한 바퀴를 돌면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을 마치고 탈의 후 건진 가운데로 돌아오면 '건강증진존'에서 기초검사를 시작으로 검사가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부는 각 공간에 'zone'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치과 검진, 부인과 검진이 끝나면 '영상의학존'으로 이동한다. 영상의학존은 MRI와 CT검사 등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남부지부는 초전도 MRI와 심장검사가 가능한 128 CH MDCT 등 첨단 건진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영상검사를 마치면 내시경검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부에는 검사 후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다. 건진 전에는 식사할 수 없어 건진을 마친 뒤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수검자가 많은데, 카페테리아에서는 켜로 된 죽을 마련해 뒀 건진 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설렘의 마음을 담아 개원 준비

산부인과 전문의 임대중 원장은 개원에 앞서 "서울남부지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정된 지부를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부에서 만난 의료진에게 받은 느낌은 '설렘'이다. 건강검진은 친절한 분위기, 정확한 건진이 있어야 수검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서울남부지부의 의료진을 보니 수검자의 만족을 얻어내는 일이 어려운 과제로 느껴지지 않은 않는다. **MEDICHECK**



MINI INTERVIEW

서울남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중 원장
"맞춤 건강증진서비스로 가겠습니다"

"건강검진 노하우와 분야별 전문 인력, 우수한 장비를 바탕으로 질병예방부터 발견과 치료연계,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맞춤 건강증진서비스로 찾아가겠습니다." 개원을 앞둔 임대중 원장의 말이다. 그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여유를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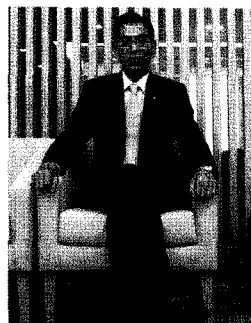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앞에 설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이죠. 모두 함께 활기차고 건강한 지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부 개원에 앞서 그의 열정은 특별했다. 열정과 함께 다른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창 무더위로 지칠 때 수검자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무엇보다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물로 많이 전염되기 때문이죠."라는 건강 팁도 잊지 않았다.

MINI INTERVIEW | 서울남부지부 조재현 본부장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최고급의 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서울남부지부 개원을 앞두고 조재현 본부장에겐 자신감이 보였다. 그 속에는 '존경받는 지부를 만들겠다.'는 그의 소신도 묻어났다.



"남부지부는 철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수검자 쏠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건진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한 조재현 본부장의 원칙에서 나온 방침이다. 새로운 탄생 남부지부가 기대되는 이유다.